

믿음이 피워내는 꽃

■ 본문

약 3:1-6

■ 시작 찬송가

84, 218, 421장
(통 96, 369, 210장)

■ 헌금 찬송가

268, 314, 342장
(통 202, 511, 395장)

▶ 혀

1. 혀는

- 1)작은 지체이다.
(약 3:5)
- 2)큰 것을 자랑한다.
(약 3:5)
- 3)불이다.
(약 3:6)
- 4)불의 세계이다.
(약 3:6)
- 5)몸 전체를 더럽힌다.
(약 3:6)
- 6)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약 3:6)
- 7)길들일 수 없다.
(약 3:8)
- 8)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약 3:8)
- 9)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약 3:8)
- 10)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할 때 쓰인다.
(약 3:9)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피워내는 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없고, 믿음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변화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믿음이 피워내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도 우리의 믿음과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도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의 원리

1)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선생이 나쁜 직업이어서가 아닙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삶과 말이 일치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약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잠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혀는 ‘오늘도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의 실수, 말의 실수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혀를 다스리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2) 두 번째, 말은 쌓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리새인은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느냐”고 힐난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더욱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쌓인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며, 입술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마 12: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으로 심판 날에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남고, 더 나아가 하늘에도 쌓입니다.

마 12: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의 주제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 허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우리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혀를 지키고,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3) 세 번째, 말은 팽창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쌓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갖고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혀는 “배에 있는 키”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목표지점에 다다르게 합니다. 또한 혀는 “작은 불”로써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약 3: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약 3: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자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긍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그들이 멈춰 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불평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허참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의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불태워 버리고, 그 자리에 재로 남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계속해서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약 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오늘의 한마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꽃을 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2. 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를 위하여
3.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선교지를 위하여
4.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국내·기관 선교를 위하여
5.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6. 탈북자, 이주노동자,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2. 혀를 조심하는 자의 결과

- 1)영혼을 환난에서 보전
(잠 21:23)
- 2)생명을 사랑
(벧전 3:10)
- 3)좋은 날을 봄
(벧전 3:10)

▶ 말

1. 그리스도인의 말

- 1)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골 3:7)
- 2)지혜롭게
(골 4:6, 벧전 3:15-16)
- 3)신중하게
(벧전 4:11)
- 4)덕을 세워야 한다.
(엡 4:29)
- 5)혀를 제어해야 한다.
(약 1:26, 3:2)
- 6) 본이 되어야 한다.
(딤후 4:12)
- 7)진실해야 한다.
(엡 4:25)